

자신 돌봄·노후 준비·일상 고민까지… ‘여성의 삶’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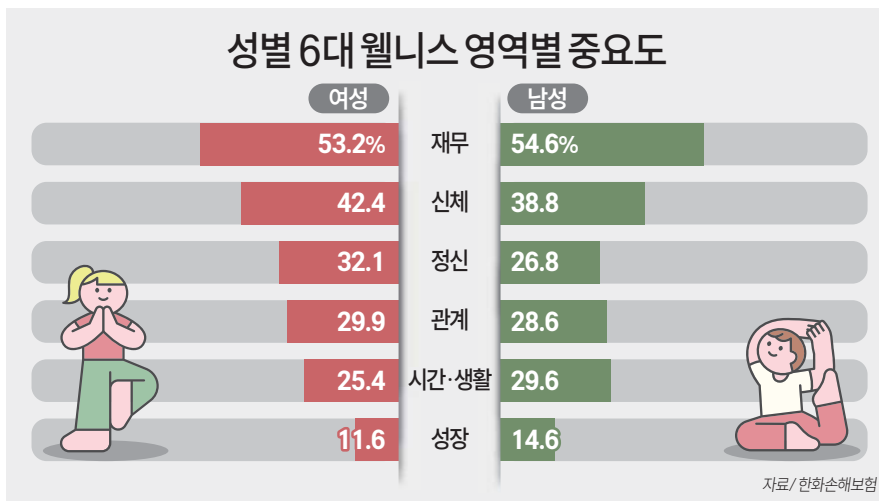
한화손보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
20~69세 여성 3000명 온라인 조사
“노후준비·부양부담 걱정 확인”
필요 지원, 상품·서비스 반영키로

“저를 위한 어떤 일정은 전혀 없더라고요.”

한화손해보험의 플러스클로버(PLUS CLOVER) TV에 출연하는 크리에이터 하은미 씨는 21일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패널 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과 아이의 병원·문화센터 일정으로 가득 찬 일정표에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다는 것. 그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작은 일정부터 의도적으로 넣어 보겠다고 했다.

자신을 돌봄 시간부터 노후 준비와 부양에 대한 경제적 걱정까지, 여성들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고민이 많다. 한화손보는 여성 3000명의 삶을 분석해 제마다 다른 우선순위와 충족 수준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상품·서비스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재무 중시하지만 만족은 낮아



연구소가 이날 공개한 ‘2026 대한민국 여성 보고서-새로운 여성 라이프의 발견’은 칸타코리아가 지난 7월 7~16일 만 20~69세 여성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를 토대로 했다. 연구소는 심층인터뷰 등도 병행하며 신체·정신·관계·성장·재무·시간 및 생활 등 여섯 영역을 살폈다.

재무를 삶의 우선순위 1·2위로 선택한 비율은 53.2%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재무 만족 응답은 40.7%로 여섯 영역 중 가장 낮았다. 만족 응답은 7점 척도에서 5~7점을 고른 비율이다. 연구진은 노후 대비와

저축·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등 미래의 경제적 안정과 관련한 수요에 주목했다.

김지혜 펠테크연구소 연구원은 재무 관련 조사 결과를 보자·서비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심층인터뷰에서 여성들의 노후 준비와 부양 부담에 대한 걱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서비스를 개발하려 한다는 답변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무엇을 중시하고 얼마나 충족하는지는 달랐다. 연구소는 영역별 중요도와 만족도, 생애주기 특성 등

을 종합해 여성의 삶을 12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미래의 선택권을 위해 현재의 시간을 쏙는 ‘숨 가쁜 생활 추격자’와 자신이 원하는 일과 관계에 시간을 쓰는 ‘시간 조율자’ 처럼 서로 다른 삶의 무게중심을 제시했다.

보고서 자문에 참여한 성용준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는 같은 연령대와 생애주기에도 지향하는 가치와 취향, 삶의 만족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연령과 가족 내 역할만으로 여성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행복감 관련 분석에서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조율할 수 있다는 ‘삶의 통제감’이 주목받았다. 분석에 포함한 요인 가운데 행복감의 차이를 설명하는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여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에 시간과 자원을 스스로 배분하는 데 의미를 뒀다.

◆ 유형 테스트·휴식 체험으로 접점

발표 현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이 유형 테스트도 안내됐다. 김 연구원은 책자의 QR코드로 접속해 네다섯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연구에서는 더 많은 문항을 사용했고 간이

테스트는 쉽고 빠르게 자신의 유형을 살펴 보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한화손보는 일상 돌봄을 지원할 수단으로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제시했다. 고은혜 펠테크연구소장은 “보험사 혼자서 일상 돌봄을 완성하기는 어렵다”며 “현장의 기업·브랜드와 협력해 고객의 일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날부터 25일까지 서울 한남사옥에서 여는 ‘웰니스 크루즈 한남’에는 펠테크·웰니스·문화 브랜드 30여곳이 참여한다. 행사 가이드북은 임신부를 위한 프로그램과 음악·향을 활용한 휴식 공간 등을 소개한다. 운동과 미식, 휴식을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돌봄을 돌아보도록 기획한 행사다.

연구를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로 옮기는 작업은 후속 단계다. 김 연구원은 “12개 유형만으로 당장 상품을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유형별 수요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기간 단축 ‘원형지 분양’… 이주 등 과제 산적

李 대통령 ‘공급 전격전’ 주문
원형지 분양·모듈러 주택 검토 지시
모듈러 주택, 미리 제작 후 현장 조립
기간 30% 줄이지만 공사비 30% 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면서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이 공급기간을 줄일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택지 조성과 건축 공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빠른 입주로 이어지면 높은 공사비 등 과제가 풀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택지 조성과 인허가·착공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 ‘공급 전격전’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인천 계양산도시를 방문해서는 원형지 분양과 모듈러 주택의 공기 단축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은 부지 조성을 마치지 않은 토지를 공급해 사업자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공사업자가 택지를 조성한 뒤 건설사에 넘기는 것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중복 작업을 줄이고 사업 목적에 맞게 토지를 개발할

여지도 생긴다.

다만 보상과 이주 등이 늦어지면 사업자가 일찍 참여하더라도 실제 착공은 늦어질 수 있다. 공급기간을 줄이려면 사업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도 함께 속도를 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기반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설치와 지반 처리 등을 누가 맡고 추가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사업자의 참여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지, LH가 시행하면서 민간에 부지 조성까지 맡기는 방식인지도 따져볼 부분이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와 내부 마감 등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주택을 통해 공사기간을 20~30%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줄고 날씨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13층·106가구)은 착공 후 14개월 만에 건설됐다.

문제는 일반 공법보다 약 30% 높은 공사비다. 국토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

부터 2030년까지 공공 발주를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초·고·공사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놴다.

설계와 발주체계도 과제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법상의 모듈러 관련 제도 반영 및 전문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모듈 제작과 시공 특성이 설계 단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설계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공사와 모듈 제작을 따로 발주하고 제작업체를 최저가로 선정하면서, 모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광재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원형지 공급과 모듈러 주택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입지와 사업성, 수요자의 수용 여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 교수는 “원형지는 조성된 택지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라도 사업자가 추가로 부지를 조성해야 해서 실제 비용 절감 폭은 불확실하다”며 “입지가 좋아 수익성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면 토지만 싸게 확보한 뒤 개발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채리 기자 cr56@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조감도.

/현대건설

‘전통 부촌’ 압구정 재개발, 소형 쟁탈전

고가주택 연간 수익 증부세 예고에 조합원들, 소형평형 경쟁 치열해져
2구역, 희망평형 설문 재실시 계획
세대수 조정에 최소 1년 소요 우려

고가주택의 세금부담을 강화한 세법개정안이 재건축 사업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조합원들이 대형평형을 대부분 가져가고 일반 분양에는 중소형만 나오면 것이 이제는 권리가액이 낮은 조합원의 경우 임의로 대형 평형을 배정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됐다. 전통 부촌인 압구정조차 소형 평형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형별 세대수를 조정하지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조합은 희망평형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압구정 2구역은 압구정동 434 일대 신현대파라이트 9·11·12차 단지 1924가구를 최고 지상 66층, 총 2381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만 2조7489억원, 전체 사업비로 규모는 4조원 인폭에 달한다.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와 2028년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9년 이주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압구정에서는 2구역의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평형 배치가 걸림돌로 부상했다.

압구정 2구역은 지난해 10월경 제4차 희망평형 설문조사를 실시한 이후 50평대 이상 대형 평형을 151세대 정도를 더 늘렸다.

조합 관계자는 “당시만 해도 30평대 조합원 중에서 76평, 84평은 물론 펜트하우스 희망자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평형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대형을 늘리는 조정안에도 항의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지난 8월 3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다. 40억원대가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50평대 이상의 경우 매년 수익 원대의 증부세를 감당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세금부담을 피해 소형 평형을 집중 신청할 경우 권리가액이 낮은 30평대 조합원들이 남은 70, 80평형이 임의로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평형별 세대수 조정과 배치도 수정이 ‘중대한’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정비계획변경 접수부터 다시 절차를 밟으면 최소 1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

압구정 2구역은 오는 30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이번 기간에 희망평형 설문조사지를 발송한다는 입장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의료비 결제 실증

국내 결제사업자 KSNET 협력
외국인 환자 대상 코인결제, 원화 정산

신한은행이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결제하고 국내 의료기관은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결제·정산 실증을 완료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결제사업자 KSNET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의료비 결제·정산 서비스의 실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해외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요에 대응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이 기존 원화 정산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 소재의 료기관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제한적인 시범거래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제 과정은 외국인 환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의료비를 지불하면 해외 규제사업자가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해 국내로 송

금하고, KSNET이 의료기관에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한은행은 결제 대금의 국내 수취와 원화 정산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의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실증의 핵심은 국내 참여기관과 의료기관이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매매하지 않고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관리 부담 없이 해외 결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외국인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